

「질투는 나의 힘」 _ 기형도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미래의 시점을 가정하여 화자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시이다.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감탄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젊은 날에 대한 탄식과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삶의 주체로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 1, 2행: 현재를 기록한 메모를 보게 될 미래의 ‘나’
- 3~6행: 방황과 고뇌로 점철된 젊은 날에 대한 회상
- 7~11행: 질투뿐이었던 젊은 날의 모습
- 12~14행: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삶에 대한 반성

✓ 주제 : 젊은 날에 대한 반성적 성찰

- ① ‘그때 그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에서 상징적 시어(‘공장’ - 화자의 생각거리나 고민거리를 생성하는 곳)를 통해 혼란스러웠던 화자의 내면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 ②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에서 추상적 대상(‘청춘’)을 구체화(‘세워 두고’)하여 화자의 반복적 행위(‘저녁 거리마다’)를 통해 알 수 있음의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지는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라는 시행의 의미를 고려하면 화자는 자신의 청춘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왔음을 알 수 있다.)
- ③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에서 화자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청춘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이 작품은 화자가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부정적 자기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제목에는, 화자가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동력이 결국 타인에 대한 질투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화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자신이 살아온 삶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타인을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과정이었음을 아프게 자각하며 부정적 자기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에는 화자가 추구했던 것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행동이 아니라, 결국 타인을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일이었다는 아픈 자각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⑥ 화자는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타인의 삶을 깎아내리고 시기하는 질투의 삶이었다는 것을 아프게 자각하고 있다.
- ⑦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에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된 부정적 자기 인식(고단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⑧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에는 화자가 경험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삶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T H E - 깊 은 독 해]

* 시의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제목 '질투는 나의 힘'은 역설법으로 볼 수 있다. '힘'은 흔히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 시에서의 '질투'는 화자를 탄식에 빠뜨리는 부정적인 요소로 표현된다. 이를 두고 '힘'이라 표현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록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지만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 온 요소라는 측면에서 '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 현재의 시점에서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의 미래 시점을 설정하고 있다(가정법). 이는 현재의 시간을 대상화시켜 전달함으로써 내용의 객관성과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 책갈피로 끼워 둔 '이 종이'가 힘없이 떨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종이'는 아마 현재의 화자가 뭔가를 기록해 놓은 종이를 말할 것이다. 즉, 현재 화자의 삶이 적혀 있는 종이인 것이다. (후반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종이'는 이 시가 적힌 종이로도 해석할 수 있다.)

▶현재를 기록한 메모를 보게 될 미래의 '나'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 화자 '나'가 제시되어 있다. 화자는 젊은 시절에 너무 많은 생각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때'는 젊은 시절을 가리키고, 미래 시점에서 본 '그때'이므로 화자의 현재를 말한다.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라는 표현은 많은 생각과 고민을 지녔으며, 자신이 계획하고 벌여 놓은 일이 많았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으로 표현하여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공장'은 무언가를 창조해 내는 생산의 현장이므로, 화자의 마음도 그와 같이 많은 생각들을 만들어 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시를 쓰기 위한 무한한 열정으로 가득한 상태를 비유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많이 기록했는데,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뜻이다. '어리석게도'라는 표현에는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담겨 있다. 위의 시행과 원인과의 관계를 갖는다.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운 게 원인이 되어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 여기서 '개'는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방황하던 화자의 상황을 비유한 표현이다. 이는 '구름'과 결합되어 화자의 방황이 무의미하고 허황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 쓸데없이 쏘다니기만 하는 개처럼, 의미없이 헛된 일을 추구했다는 의미이다. 이때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라는 표현은 헛되이 방황했음을 뜻한다. 감탄형 어미 '~구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회한(과거의 삶에 대한 평가)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감탄형 어미의 반복은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젊은 날에 대한 회상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 지난 삶에 대한 후회와 한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 지난 청춘 시절(젊은 날의 화자)을 돌아보고 있다. 이때 '저녁 거리'는 성찰의 공간에 해당한다. '청춘을 세워 두고'라는 표현은 무형의 대상을 구체화한 것에 해당한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에도 해당한다.)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 살아온 날들을 헤아려 보고 있다. 지난날에 대해 성찰 중인 것이다.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 화자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냄으로써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황을 나타낸다. 즉, 사람으로부터 단절된 화자의 삶이 나타난다. 혹은 다른 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낸다.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 화자는 자신이 이제껏 희망을 갖고 열정적으로 해 온 일들이 결국은 질투였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다. 이러한 질투로 인해 화자는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우고, 기록할 것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질투는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이다. 이 시에서 화자의 '질투'는 자신의 삶이 타인과의 경쟁만을 생각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회한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질투밖에 남은 것이 없는 청춘의 삶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 삶에 대한 반성의 내용을 짧게 글로 남겨두는 상황이다. 이때 '짧은 글'은 현재의 화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후 작성한 것으로, 이 글에는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맥락상 '짧은 글'이 다음에 제시되는 두 줄의 시구 혹은 이 시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2행에 제시된 '이 종이'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 '사랑을 찾아 헤매었'다는 것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에 해당한다.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화자는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음이 나타난다. 즉, 타인을 질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이때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삶을 의미한다. 즉, 화자는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것이다. 질투만 있었고,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한 것엔 대한 탄식과 자조, 반성적 태도가 나타난다.

▶사랑하지 못한 삶에 대한 반성

[수능적 독해 Point]

- 화자 : 화자 '나'가 겉으로 드러나 있음 [방황하는 젊은이]
- 상황 : 미래 시점에 자신의 현재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과거와 현재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쓰고 있음
- 정서·태도 : 회상과 성찰, 후회와 탄식, 반성과 자조, 고백적

[연 관 - 기 출 문 제]

1. <보기>를 바탕으로 다음 글의 시어를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 ① ‘너무나 많은 공장’은 화자가 여러 삶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과 관련이 있겠군.
- ②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라는 표현은 자신이 저버릴 수 없었던 많은 삶들이 있었다는 것이겠군.
- ③ ‘개처럼’ ‘공중에서 머뭇거렸’다는 것은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화자의 절망적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질투’가 ‘희망’의 전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불행에 대한 절망보다는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겠군.
- ⑤ ‘사랑’은 궁극적으로 화자가 자기 삶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으로 작용했음을 추리할 수 있겠군.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 왔더니라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견디지 못해
눈 오는 네거리에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 오는
편안한 그늘이여

마음의 기는 이제금
㉡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나에게 원이 있다면
늪우침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 가는
그 일이란다
㉢ 황제의 항서(降書)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가
말게 가라앉은 ㉣ 하얀 모랫벌 같은
마음씨의 벼은 없을까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보는 이 없는 시공에서
㉤ 때로 울고 때로 기도드린다

- 김남조, 「정념의 기(旗)」

(나)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2. (가)와 (나) 화자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풍자하고 있다.
- ② 자신의 삶에 대한 고뇌와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움의 대상을 떠올리고 있다.
- ④ 사물이 지닌 인간적 덕성에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타인의 삶에 비추어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3. (가)와 (나)의 시상 전개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화자의 심리적 추이를 드러내고 있고, (나)는 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화자의 행동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내면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고, (나)는 동일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계절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고, (나)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물에 대한 시선 이동을 통해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다양한 사물에 빚대어 화자가 추구하는 내면의 상태를 보여 주고 있고, (나)는 미래의 시점을 가정하여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공간의 풍경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고, (나)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의 역전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의 마음속 상태를 사물을 통해 구체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② ㉡: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초탈하고자 하는 정서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마음속으로 동경하는 바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 행동의 나열을 통해 화자가 염원하는 바에 대한 간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르네 지라르는 인간의 욕망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이미 욕망한 것을 자신도 향유하려는 바람에서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때 욕망은 주체와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타자, 이른바 욕망의 중개자에 의해 중개된다. 예를 들어 학업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A와 B 학생이 있다고 하자. 그중 A가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학원에 등록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B가 부모님에게 자신도 그 학원에 등록해 달라고 졸랐다고 한다. 이때 B는 순수하게 자신의 학업 향상을 위해 학원 등록을 원했다기보다는 단지 경쟁자인 A가 그 학원에 등록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원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욕망의 주체는 B이고, 욕망의 대상은 학원, 그리고 욕망의 중개자는 A가 된다.

지라르의 관점에서 이런 관계를 통해 추구되는 욕망은 결국 허영심일 뿐이다. 또한 이런 모방된 욕망은 중개자에 대한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고, 이러한 경쟁심이 과열될 때 주체와 중개자 사이의 차이가 소멸되면서 개인의 정체성이 약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① 화자가 세운 ‘너무나 많은 공장’은 화자가 추구했던 수많은 욕망들을 표현한 것일 수 있겠군.
- ② 화자가 가진 것이 ‘탄식밖에 없’게 된 것은 자신이 욕망한 것이 허영심이었기 때문일 수 있겠군.
- ③ 화자를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화자가 욕망의 중개자임을 알았기 때문일 수 있겠군.
- ④ 화자가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하는 것일 수 있겠군.
- ⑤ 화자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내면의 욕망을 주체적으로 자각하지 못하여 정체성이 약화된 상황에 대한 자각일 수 있겠군.

[All-바르게 확인하는 정답 및 해설]

1.

[정답 SCAN] ③

- ③ <보기>에서는 기형도가 그 자신은 도시 생활에서 절망하고 병들었음에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애썼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는 도시에서 비록 힘들지라도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겨운 삶에 대한 절망적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SCAN]

- ①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다는 것은 화자가 꿈꿔 온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공장'은 화자가 관심을 가진 다양한 삶의 모습과 관련이 깊다.
- ②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는 기형도 자신이 관심을 갖거나 혹은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삶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질투'가 '희망'의 전부라는 것은 자신은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다는 것에서 그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사랑'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정답 SCAN] ②

- ② (가)의 화자는 순수한 삶을 갈구하며 '혼란과 열기를 / 견디지 못해' 고뇌하고 방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등의 표현을 통해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고뇌와 방황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SCAN]

- ① (가)는 혼란한 마음의 상태에 대해, (나)는 방황과 번뇌의 젊은 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풍자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가)는 과거 회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움의 대상을 떠올리고 있지도 않다. (나)는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과거로 인식하고, 이를 회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리움의 대상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다.
- ④ (가)와 (나) 모두 사물이 지닌 인간적 덕성을 예찬하고 있지 않다.
- ⑤ (가)와 (나) 모두 타인의 삶에 비추어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정답 SCAN] ④

- ④ (가)는 '꽃잎', '하얀 모랫벌' 등의 다양한 사물에 빗대어 화자가 추구하는 내면의 상태를 보여 주고 있고, (나)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라는 미래의 한 시점을 가정하여 질투로 가득 차 있던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SCAN]

- ① (가)에는 시간의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번뇌하는 마음과 순수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에 대한 염원이 나타나 있으나 이를 심리적 추이로 보기도 어렵다. (나)의 시상 전개에 공간의 변화가 중심이 되지는 않는다.
- ② (가)의 2연에서 화자가 느끼는 '혼란과 열기'와 '편안'함은 상반된 정서로, 화자가 이들 사이에서 내면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와 같은 정서를 느끼고 있는 공간은 모두 '눈길 위'이므로, (가)에 공간의 대비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나)에는 반복되는 동일한 행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가)에는 계절에 따른 대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나)역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물에 대한 시선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가)에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이 나타나지 않으며, (나) 역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의 역전이 나타나지 않는다.

4.

[정답 SCAN] ②

- ② ㉠이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의구심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오답 SCAN]

- ① '한 폭의 기'는 공중에서 펼쳐지는 형상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으로, 방황하고 번뇌하는 화자의 마음속 상태를 빗댄 구체적인 사물이다.
- ③ '황제의 향서'는 '무거운 비애'에 대한 비유이고, 이와 같은 정서가 맑게 가라앉은 벼를 찾는 것은 곧 비애를 초탈하고자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하얀 모랫벌'은 하얗고 곱게 펼쳐진 모래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순수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며, 이는 곧 화자가 동경하는 바를 형상화한 것이다.
- ⑤ '울고', '기도드린다'와 같은 행동의 나열을 통해 화자의 간절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5.

[정답 SCAN] ③

- ③ <보기>의 관점에서 보면 ‘그 누구도’ 화자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화자가 젊은 날 희망했던 것이 주체적인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닌 ‘질투뿐’이었기 때문이지, 화자가 욕망의 중개자임을 알았기 때문은 아니다.

[오답 SCAN]

- ① 화자가 마음속에 세운 ‘공장’이란 곧 화자의 욕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보기>의 내용대로라면 화자가 추구한 욕망은 주체적인 것이 아닌 모방된 욕망이고, 이렇게 추구된 욕망은 허영심일 뿐이라고 했으므로, 화자가 ‘탄식밖에’ 가진 것이 없게 된 것은 허영심일 뿐인 욕망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④ ‘질투’는 곧 누군가에 대한 샘, 혹은 미움이므로, 이는 <보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개자에 대한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보기>의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주체적인 존재로서 개인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